



친국의 호수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주 이닝시 근교 세리목 호수의 풍경. 쪽빛 호수와 흰 구름을 피우는 하늘이 맞닿아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상 김흥직 작>

# 참 많이 가까워진 韓·中... 우린 스무살 친구



### ▲나빌레라

한국 승무는 '정중동(靜中動)·동중정(動中靜)'의 정수로 중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입선 황위영(申)작>

### ◀정겨운 미소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만난 장족(藏族) 아낙의 미소가 정겹다. <입선 김중원 작>

## 광주일보·광주중국총영사관 공동 주최 사진 공모 수상작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삶의 모습과 풍광은 달랐다. 넓고 신비한 색채를 품고 있는 이국적인 중국의 세리목 호수 풍경은 보는 이의 시선을 빨아들인다. 구름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시골마을, 초원에서 한가로이 양떼를 몰고가는 소녀의 모습에서 중국 전원의 색다른 정취가 피어 오른다. 광주일보사와 주 광주 중국총영사관이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공동주최한 사진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작품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에 비친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투영된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 본다.



### 안개속 두이촌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는 윈난(雲南)성 두이촌의 아름다운 정경. 외지인에게는 다닥 다닥 붙은 다락논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소수민족의 애환이 묻어나는 곳이다. <입선 손영규 작>



### 인상유산제

중국의 유명 예술가 장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연출한 계림의 수상쇼 '인상유산제'. 거대한 스케일과 연출력이 인상적이다. <입선 최동혁 작>



### 마오족 공연단

꾸이저우(貴州)성 서강천호묘채(西江千戶苗寨)의 뒷골목에서 마오(苗)족으로 구성된 전통 손님맞이 공연단이 자신들을 찍은 사진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독특한 복장의 공연단은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어준다. <2등 김기용 작>



소녀목동 신장(新疆) 세리목 호수 주변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는 소녀. 초원의 목가적인 풍경에서 평화와 여유가 느껴진다 <2등 권인숙 작>



### 예향의 야경

아름다운 광주의 야경. 콘크리트 숲이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휘황한 불빛으로 도시는 또다른 색깔의 옷을 입는다. <3등 이연희(申)작>